“동고당 문성 스님, 불교 정화의 사표(師表)”

제1회 문성 대종사 생애와 사상 조명 학술대회 개최



부산 동명대 세계선센터는 7월 2일 동명관 4층에서 ‘제1회 문성대종사를 그리는 학술대회 동고당 문성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개최했다.

개항부터 경술국치, 일제 강점기, 한국 전쟁까지 근·현대 100년 역사는 불교계에도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 질곡의 세월 속에서도 부처님 정신을 지켜내며 정화에 앞장서 왔던 문성 스님(1897~1997)의 업적을 조명한 자리가 열렸다.

부산 동명대 세계선센터(선원장 수진)는 7월 2일 동명관 4층서 ‘제1회 문성대종사를 그리는 학술대회 동고당 문성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개최했다. 이 자리서 선원장 수진 스님은 문성 스님의 생애는 ‘불교 정화의 삶’ 그 자체임을 강조했다.

수진 스님은 “당시 조선총독부가 33본산 주지를 임명했는데 문성 스님은 그 가운데 친일 승려인 강대련을 명고 축출했다. 조선총독부에 정면으로 맞선 이 사건으로 징역을 살고, 고초를 겪었다”며 “당시 불교청년유신회 필두에서 탈 일본, 탈 일본불교를 외치며 피눈물로 저항한 스님의 나이는 22세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진 스님은 “문성 스님은 평소 ‘나의 원칙과 근성은 은사였던 서응 스님의 곡직함과 만해 한용운 스님의 민족적 자존에서 기인한다’ 고 말씀하실 정도로 정화 정신으로 사신 분”이라 말했다.

이와 관련 수진 스님은 문성 스님의 불교 정화운동에 대해 언급했다. 수진 스님은 “문성 스님은 풍전등화인 종단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셨다. 고성 옥천사를 정화한 후엔 범어사 동산 스님과의 인연으로 범어사 주변 뿐 아니라 마하사까지 무혈로 정화 하셨다”며 “통합종단 출범 후에는 감찰원장으로 추대되어 종단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애쓰셨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표에선 문성 스님의 계율 정

일제 치하 온갖 고초에도
탈 일본·탈 일본불교 주장
불교 정화운동에도 힘써
청빈한 삶, 모범으로 ‘재조명

신과 수행 및 보살도, 그리고 청빈 사상을 돌아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발표는 △근대와 전통의 갈림길을 넘어선 원력의 방향(석길암 동국대 교수) △동고당 문성 스님의 계율정신(황정일 동국대 외래교수) △동고당 문성의 교학 인식과 선법 이해(고영섭 동국대 교수) △동고당 문성의 밥 살림과 차 살림(김영덕 위덕대 교수) 순으로 진행됐다. 논평에는 원영상 원광대 교수, 김준호 울산대 교수, 박재현 동명대 교수, 장재진 동명대 교수가 참여했다.

황정일 교수는 “근현대 한국불교에서 문성 스님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소욕지족(所欲知足)과 방하착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신 분”이라며 “은사 서응 스님에게 32마지기에 이르는 농토를 물려받았지만 농민과 제자들에게 대가 없이 나눠주셨다”고 일화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권력욕에도 초연하신 모습은 이 시대 큰 귀감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준호 교수는 “문성 스님은 〈화엄경 보현행원품〉을 항상 수지 독송하고 실천한 보현행자 그 자체”라고 말했다. 또한 고영섭 교수는 “문성 스님은 교학 및 선법에 대해서도 대선사이며 대강백 그리고 강사였고 율사이기도 했다”고 마무리했다.

이번 학술대회의 의미에 대해 수진 스님은 “문성 노사의 곡직하고 청빈한 삶을 후학들에게 전해 이 나라와 종단이 정화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하길 바란다”며 “걸림 없이 자유로웠던 스님의 삶과 사상을 인지하고 알리는 것은 의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 수진 스님(동명대학교 석좌교수), 원오사 주지 정관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출산, 생명의 소중함 몸소 실천하는 길”

삼광사, 7월 1일 출산장려 토크 콘서트



천태종 삼광사 (사)나눔광장은 7월 1일 삼광사 지관전에서 출산장려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천태종 삼광사(주지 무원)가 생명의 소중함을 역설하며 출산 장려운동에 팔을 걷어붙였다.

천태종 삼광사 (사)나눔광장은 7월 1일 삼광사 지관전서 ‘출산장려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부산광역시 출산장려기금지원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토크 콘서트에는 삼광사 총무국장 도선 스님과 김경희 동부산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 심상천 부산시 출산보육과 과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도선 스님은 출산이 곧 생명의 소중함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사상과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불교 내 만남주선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 교수는 “최근 출산과 양육을 독려하기 위해 출산 지원금 및 지원 용품 등 후원책이 생겨나고 있다”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 정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다문화·한부모·조선 가정 등에 대한 지원도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심상천 과장은 부산시 출산보육 시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불자들은 토크콘서트를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정립한 계기였다고 입을 모았다.

이영미(51) 씨는 “나라의 존속이 걱정될 정도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상황을 직접 들으니 염려가 된다”며 “현재 정부가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젊은이들이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에 크게 공감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선희(52) 씨는 “시대 흐름과 문제를 함께 직시할 수 있어 의미 깊은 자리였다”며 “생명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따지는 요즘 세태가 안타깝다. 앞으로 자리를 많이 만들어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 총무국장 도선 스님, 최주덕 삼광사 신도회장, 김미규 천태삼광 차문화 보존회장, 강태영 세계여성평화그룹 동부지부 본부장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결혼이주여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 증보 출판기념회

7월 2일 500여명 참석 ‘성황’



불교는 종교인가, 과학인가? 이 물음에 대해 황경환 회장((주)진양유조선 대표이사·사진)는 “불교는 부처님께서 인간의 삶과 고통, 죽음의 이치를 풀어낸 최고의 과학”이라고 설명했다.

황경환 회장은 7월 2일 경주 코오롱 호텔 오운홀서 책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 증보판 출판 기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황 회장은 “불교의 자비를 모든 생명을 위해 실천한다면 우주와 모든 생명이 나의 원군이 될 것”이라며 “불교를 제대로 알고 실천해 오늘 자리한 모두가 행복을 누리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이날 자리엔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 김관용 경북도지사, 강길부 국회의원, 이채익 국회의원, 김석기 국회의원, 최양식 경주시장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회장님의 말씀은 바삐 달려가던 제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만들었다”고 격려했다.

하성미 기자

“경봉 스님 불교 인재불사 뜻 이어”

34주기 추모다례재서 장학금 총 3,800만원 전달


경봉문도회는 ‘34주기 경봉 스님 추모 다례재’서 장학금 총 3,800만원을 전달했다.

경봉문도회(대표 법산)는 7월 1일 통도사 극락암서 ‘제34주기 경봉 스님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경봉문도회는 동국대 박사 과정(2명)·동국대 석사과정(9명)·능인불교대학원(1명)·동국대 학사과정(12명)·중앙승가대(8명)·동양대학(1명)·동원과학기술대학교(1명) 총 34명에게 100만원, 통도사 승가대학(8명)에게 500만원, 총 3,8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아울러 극락암 호국선원·보광선원·서운암 무위선원에 수행지원금과 영축율원승가대학원 연구비로 총 800만원을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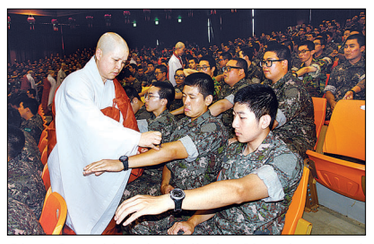
경봉문도회 대표 법산 스님은 “오늘 자리한 모든 사람들이 경봉 스님의 긍지와 법문을 마음에 새기고, 후학들은 수행을 통한 깨달음과 학업에 더욱 매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봉문도회는 살아생전 불교 인재 불사의 뜻을 강조한 경봉 스님의 뜻을 이어 가며, 매년 학인 스님들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성미 기자

운문사, 논산훈련소 수계대법회 봉행

7월 2일 호국 연문사서… 수계법사 회주 명성 스님


청도 운문사(주지 진광)가 7월 2일 호국 연문사서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청도 운문사(주지 진광)가 7월 2일 호국 연문사서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대법회는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 승가대학장 일진 스님, 주지 진광 스님, 호국 연무사 주지 자운 스님을 비롯해 장병 3,500여명이 동참했다.

명성 스님은 “계는 자신도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는 의미”라며 “오늘 계를 받은 군 장병들이 생사윤회로부터 해탈의 문으로 이끄는 삼귀의와 오계를 지키고, 호국불교 정신으로 사회에 크게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운문사 회주 명성스님은 ‘성심으로 하지 않은 일은 진실할 수 없다’는 평소 철학을 바탕으로 수행을 이어오고 있다. 운문사서 배출한 학인스님만 2,000여명에 달한다. ‘법계문학상’, ‘법계장학금’, ‘법륜비구니 장학회’ 등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손문철 대구 지사장



제2차 평온
공개강좌

말법시대의 현성공안 만을
선정하여 라이브로 공개강좌 하다

고통 & 병통 해탈법

• 공 개 강 좌 일 시 : 2016년 8월 31일 (수) 오후 3시
• 공 개 강 좌 장 소 : 화엄경 강원 (대구 수성구 소재)
• 참석대상 및 참가비 : 누구나, 선착순 33명 제한, 참가비 무료
• 예약신청 및 문의처 : 1899-9532 (예약접수 하신 분만 참석 가능 함.)

평온센터 부설-
화엄경 강원
방장 진귀

